

“원형복원 어려운 5·18 사적지 미래세대 위해 활용해야”

5·18 사적지 보존과 활용을 위한 1차 전문가 토론회

현 상태 최대 보존 ... 야경 위한 작업·QR코드 활용 등 대안
일자리 창출·공간 재생산 가능한 대표 브랜드화 작업 필요
장소 의미 등 DB 구축...관리·운영 통합관리시스템도 시급

광주·전남에 산재한 약 50곳의 5·18 사적지가 향후 40년이 지나면서 사실상 원형을 유지하거나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현 상태에서의 최대 보존과 활용을 현실적 대안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됐다.

“40주년을 맞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축은 투쟁과 연대의 역사의 현장을 잘 보존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다.”

5·18민주화운동의 사적지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전문가들의 토론회가 열렸다.

1일 5·18기념재단 따르면 지난 30일 5·18 5·18기념문화센터 2층 대동홀에서 10명의 전문가들이 사적지 보존과 활용에 관한 각각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5·18 사적지 지정 22년, 기억문화의 지형 변화’라는 주제로 발표한 정호기 박사는 “그동안 5·18 사적지는 지정은 됐으나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사적지’라 함은 5·18 당시 주요한 항쟁지 등 역사적으로 기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공간이지만, 광주와 전남의 ‘5·18사적지는 공표지식’으로만 평가받고 있다는 것이다.

사적지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은 해마다 5월이 되면 언론에 빠지지 않고 보도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정 박사는 “사적지들의 다수는 이미 현장성을 상실했다”면서 “특히 광주시와 전남도의 5·18 사적지 관리의 각자 따로 진행되고 있다” 주장했다.

정 박사는 “사적지 현장들을 원형 보존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게 현실”이라면서 “최대한 원형 보존을 원칙으로 가져가면서 활용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용철 오월지기 활동가는 “5·18사적비에는 광주다움·광주의 정체성인 민주·인권·평등·자유 가치를 담아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계승해야 한다”면서 “야간 경관을 위한 작업과 QR코드 활용”을 제안했다.

류봉식 광주진보연대 상임대표는 “5·18사적지 공간에 대한 연관성, 장소의 의미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사적지 관리에 관한 책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는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 필수적이다”고 했다.

안평환 광주도시재생 공동체센터 대표는 “도시 개발도 도시 재생으로 방식의 전환이 되고 있다”면서 “5·18 사적지도 도시 재생과 맞물려 일자리 창출·공간 재생산 등을 할 수 있는 대표 브랜드화 작업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지난 30일 5·18기념재단에서 열린 ‘5·18사적지 보존과 활용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5·18기념재단 제공)

이 필요하다”고 했다.

40주년을 넘어 미래세대에게 5·18 사적지를 이용한 오월 정신 계승 방안도 제기됐다.

최윤현 문화기획 3456대표는 “40주년을 맞은 2020년을 살고있는 세대를 넘어 40년 후인 2060년의 세대에게 사적지들이 어떠한 의미가 되고 어떤 존재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다”고 했다.

주수정 전남대 문화학과 박사는 “다수의 5·18사적지는 도시공간과 조화되지 않고 홀로 외롭게 존재한다”면서 “5·18 비제험 세대들에게 5·18 당시의 목소리와 닿을 수 있는 사적지로 재생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2차 전문가 토론회는 오는 19일 오후 2시 5·18기

념문화센터 2층 대동홀에서 ‘5·18 사적지와 다크투어리즘’을 주제로 김영미 동신대 관광경영학과 교수의 발제와 전문가 토론회로 꾸며질 예정이다.

한편 광주시에는 5·18민주화 운동 사적지로 24곳에 26개의 표지석과 표지판이 설치돼 있고, 전남도는 8개 시·군에 25곳의 ‘5·18사적지’를 지정고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어린이 보호구역’ 헛갈리셨죠?

시작·해제 지점 노면 표시합니다

광주, 전국 첫 실시

광주지역 5개 초등학교 앞 도로 노면 위에 어린이 보호구역 시작점과 해제 지점이 표시된다.

광주지방경찰청은 1일 동구 장원초·서구 광림초·남구 효덕초·북구 각화초·광산구 월봉초 어린이 보호구역에 운전자들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의 명확한 구분과 식별의 강화를 위한 ‘어린이 시선’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시선 시범사업은 광주시·도로교통공단·교육청과 함께 협업팀을 구성,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작점과 해제 지점을 알아볼 수 있도록 각 지점에 ‘시작’, ‘해제’ 글자를 밝은색으로 그려 눈에 잘 띄게 하는 것으로, 운전중 ‘어린이 보호구역 시작·해제선’을 빨리 파악함과 동시에 어린이에게 시선을 떼지 말자는 의미도 갖고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서구 광림초교에 시범 설치를 완료했으며, 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거쳐 나머지 4개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도 이번호 단으로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운전자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한 운전자는 “운



전을 하다 보면 어디까지 어린이보호구역인지 헛갈렸는데, 노면에 크게 표시되면 어린이보호구역이 한눈에 들어와 안전운전에 도움이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광주경찰청은 어린이 시선 사업 제안서를 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제출해 전국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과 광주시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작 및 해제 지점의 명확한 구분으로 어린이는 보다 안전하고, 운전자도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시 복구, 안심식당 동행 챌린지 시작

광주시 복구가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안심식당 챌린지’를 시작한다.

1일 복구에 따르면 복구는 전체 부서와 동행정복지센터가 참여해 ‘공직자 안심(동네)식당 동행 챌린지’를 추진한다.

복구의 39개 부서와 28개 동행정복지센터는 11월 한 달 동안 각 지역마다 지정된 안심식당 213곳과 영세한 동네음식점을 다니면서 점심식사를 하기로 했다.

특히 식사 후 인증사진을 찍고 내부 행정업무시스템이나 개인 SNS 등에 게시, 정부가 추진 중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안전하고 건강한 식문화 개선 정책에도 동참한다는 방침이다.

복구는 지난 4·6월 시행된 ‘착한 소비 프로젝트’와 2개월 동안 970명의 직원이 참여해 6200만 원의 소비를 이끈 ‘공직자 착한 선결제 챌린지’를 펼친 결과,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점을 토대로 이번 챌린지를 계획 했다고 설명했다.

문인 복구정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에 대응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대 7일 ‘수면장애’ 학술대회

전남대학교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수면장애’에 관한 학술대회를 연다.

전남대 간호대학은 오는 7일 전남대 대학본부 융복합에서 ‘수면연구의 최신지견’이라는 주제로 ‘2020년 추계학술대회’를 가진다.

최근 수면장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늘면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고, 학계에서도 다학제적 접근을 통한 수면장애의 해결과 관리방안 모색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수면장애를 다

루는 학술대회가 열려 주목을 끌고 있다.

간호과학연구소와 케어 센터(Chonnam Advanced Reality-based Education)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국내외 수면전문가들은 ▲수면 취약 직업군의 수면 건강 ▲생체신호 기반 수면장애 측정 ▲수면장애의 분자적·심리학적 특성 및 심혈관 질환과의 관련성 등에 대한 간호학적·의학적·심리학적·공학적 접근방법을 소개한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화물공제조합 광주사업소가 조합원의 성원에 힘입어 2020. 8. 1부터 독립된 지부로 승격하여 새 출발합니다.

화물공제조합 경남지부
광주사업소
(2007. 9. 1 ~)

➔

화물공제조합
광주지부
(2020. 8. 1)

- 광주지역 조합원의 자긍심 고취
- 광주지역 조합원에 대한 원활한 공제서비스 제공

“광주광역시 화물운송사업자와 차주분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광주지부로 거듭나겠습니다.”



전국화물연합회 회장 김옥상



대구화물협회 부회장 김동석



인천화물협회 부회장 김세선



대전화물협회 부회장 김기승



전남화물협회 부회장 백종기



서울화물협회 감사 신해수



울산화물협회 감사 김정기



경기화물협회 감사 고달원



광주화물협회 이사장 최경석



경남화물협회 이사장 최경석



부산화물협회 이사장 신한순



강원화물협회 이사장 전수산



충북화물협회 이사장 민권연



충남화물협회 이사장 최일운



전북화물협회 이사장 양봉식



경북화물협회 이사장 김관일



제주화물협회 이사장 고영철



한남화물협회 이사장 강성일



세종화물협회 이사장 임일문



전국화물공제조합 이사장 서훈백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공제조합